

베네수엘라, 차베스 대통령 전격 사임

□ 차베스 대통령 전격 사임

-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2일 새벽(현지시간) 전격 사임했다고 현지 TV방송 글로보 비시온이 보도함.
- 차베스 대통령은 9일부터 시작된 노조연맹 CTV의 총파업이 상공인연합회 (FEDECAMARA)와 언론사가 동참하면서 차베스 퇴진 시위로 확산되면서 국가경비대의 발포로 시위대 10여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사태로 발전되고 군 수뇌부마저 차베스 퇴진 요구에 동참하자 전격 사임한 것임.
- 차베스 대통령은 반정을 선언한 뒤 대통령궁을 찾아 중도 사퇴를 공식 요구한 군 고위장성 3명의 퇴진 압력에 굴복해 사의를 전달하고 대통령궁을 떠나 수도 카라카스 인근 라 카를로타 공군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
□ 차베스 대통령 사임 배경

- 차베스 대통령 사임의 직접적인 계기는 베네수엘라 최대 단위노조인 국영 석유회사 PDVSA 노조 및 노조연맹 CVT의 총파업이었으나,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차베스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국 운영으로 인한 민심이반이었음.
- 차베스 대통령은 빈민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이후 집권 3년 동안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무리한 국정 운영으로 비난을 받아왔음.
- 특히 지난해에는 여소야대 정국을 이용해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절차 없이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수권법을 제정해 49개의 사회주의적 개혁법을 발표하자, 기득권층의 반발이 더욱 거세짐.

- 차베스 대통령은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해 농민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한 토지개혁법과 같은 다수의 사회주의적 개혁법을 제정하고, 반정부 성향이 짙은 노조연맹(CVT)을 친정부 성향의 볼리바르 노동자전선(FBT)으로 대체하는 한편, 반정부 언론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시도하는 등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노동계, 재계, 언론계가 모두 정권에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함.
- 또한, 독재정권 시절 가톨릭 교회의 역할을 문제삼으면서 교회와의 관계도 불편해진 상황이며, 정부와 국영 기업의 요직에 자신과 가까운 군부출신 인사를 임명하고,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개혁사업인 '볼리바르 2000운동'에 군을 동원함으로써 군의 불만을 키워 옴.
- 이외에도 국제 원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, 경제악화, 범죄증가, 미국과 관계 악화, 콜롬비아 반군단체 FARC 지원문제 등으로 군 고위장교가 공개적으로 차베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권력기반이 서서히 붕괴되어 왔었음.

□ 향후 정국 전망

- 현지 일간지 엘 유니베르살은 상공인연합회(FEDECAMARA)의 페드로 카르모나 회장이 과도정부를 이끌 것을 요구하는 군부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보도했으나,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음.
- 차베스 대통령의 사퇴를 주도한 에프라인 바르케스 벨라스코 육군 참모총장은 군부 쿠데타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군이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세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임.
- 그러나,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빈민층의 지지가 여전한데다 차베스 대통령을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어 베네수엘라의 정국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문의처 김영석 ☎ 3779-6653 claudio@koreaexim.go.kr
 최성규 ☎ 3779-6665 ppio93@koreaexim.go.kr